

ExxonMobil, 에틸렌 100만톤 투자협상

싱가폴 Jurong Island에 2차 플랜트 건설 ... 싱가포르 정부와 예비협상

ExxonMobil Chemical이 싱가포르 정부와 Jurong Island 소재 2차 에틸렌(Ethylene) 100만톤 크래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협상에 들어갔다.

또 ExxonMobil은 기존의 Jurong island 소재 에틸렌 크래커의 생산능력을 80만톤에서 100만톤을 확대할 계획이다.

한편, Shell은 2004년 12월 말 당초 발표한 싱가포르 Bukon Island 소재 에틸렌 100만톤 건설 프로젝트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정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1/31>